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7~7/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 크신 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열반경(2)	이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2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무비 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4	매일 108배 신자비도량 참법	행복문화연구소	붓다스쿨	9	도표로 읽는 경전입문	정운/배종훈 그림	민족사
5	여래장사상의원전(학술총서77)여래장경부증불감경승만경	이평개 역주강설	민족사	10	봉암사 동안거 일기	산강 대혜 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공안집 '연등회요' 역경불사 시작 알리다



연등회요1
회옹오명 편저
김태완 역주
담앤북스/ 4만 2000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회요1-선문답과 법문 공안집〉은 송나라 선사 회옹 오명(晦翁悟明)의 〈종문연등회요(宗門聯燈會要)〉(30권)를 국내 첫 완역하는 역경 불사의 첫걸음이다. 김태완 무심선원장은 〈만신찬속장경(卍新纂續藏經)〉 제79책인 〈종문연등회요(宗門聯燈會要)〉 총 30권을 번역·주석해 6권의 책으로 출간한다는 원력을 세우고 이번에 1권을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구어체인 백화문(白話文)으로 기록된 원전을 한중일 최초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흔히 〈연등회요〉로 불리는 〈종문연등회요〉는 남송 대혜 종고의 3세 문하이자 천주 숭복사의 주지였던 회오 오명 선사가 1183년에 편찬한 30권으로 된 선종 전등사서(傳燈史書)다. 과거칠불을 비롯해 인도 조사 28명, 중국 조사 6명, 우두종(牛頭宗) 9명, 오조 홍인(五祖弘忍) 문하 8명, 육조 혜능(六祖慧能) 문하 13명, 남악 회양(南嶽懷讓) 문하 18세 303명, 청원 행사(靑原行思) 문하 15세 289명 등 총 656명의 조사와 선사들이 깨달은 인연담, 선문답, 상당법어, 전법게 등이 실려 있다.

〈종문연등회요〉 국내 첫 완역
총 30권을 6책으로 출간 예정

'선종의 지침서'로 평가받는 이 책은 고려 후기 진각국사 혜심이 편찬한 〈선문염송〉의 모체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어체인 백화문으로 쓰여 있기에 그간 일부가 번역, 인용되었을 뿐 우리말로 완역되지 못했다.

〈연등회요1〉은 김태완 원장이 한중일 최초로 〈종문연등회요〉의 백화문 원전을 번역하고 상세한 주석을 덧붙였기에 그 성과와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김태완 원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방대한 양의 원전과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원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현대 우리말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백화문 사전은 물론 한어(漢語)사전, 선어(禪語)사전, 불교사전, 중국어사전 등 가능한 모든 사전을 참고했으며, 불경(佛經)이나 선사들의 어록을 인용한 문장은 빠짐없이 그 원전을 확인해 번역의 오류를 줄였다.

또 원문과 번역문을 나란히 배치해 한 단락씩 대역(對譯)해 번역의 정확도를 높였다. 문법적 사항과 불교 용어, 선 용어, 인명, 지명 등은 상세한 주석을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본문에 QR코드를 삽입해 무심선원에서 진행된 〈연등회요〉 법문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중국 조사선의 뿌리와 요체를 쉽고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역대 선지식들의 화두와 가르침을 참구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의 진실을 드러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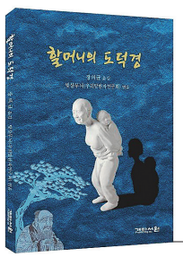
디스이즈잇
얀 케르쇼트 지음
방기호 번역
도서출판 씨아이알/ 1만9000원

깨달음에 관한 공부는 스승과 제자,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해야 할 수행, 도달할 곳이 없다. 누구나 본래 도착해 있음을 문득 확인하게 될 뿐이다. 확인하고 나면 모두가 평등하게 '이것'이다. 아무도 본래부터 이 진실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진실을 놀라울 정도로 낱낱이 드러낸다.

이 책의 저자인 얀 케르쇼트는 영성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오랜 세월 떠돌며 갈고 닦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안착하게 되는 종착역과 같다. 이 책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1, 2부에서는 구도와 깨달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관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에세이식으로 서술한다.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부는 토니 파슨스를 포함하여 서구의 영적 스승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영적 체험과 깨달음에 대한 오해, 구도자들이 영적 여정에서 빈번히 겪게 되는 혼란,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모순되는 이러한 전일(全一)적인 관점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로 구성돼 있다.

신중일 기자

할머니 말씀엔 道가 있다



할머니의 도덕경
장의균 옮김
개마서원/ 1만 2000원

〈할머니의 도덕경〉은 20년 전 우연히 노자의 〈도덕경〉을 접한 저자가 이뤄낸 공부의 궤적이다. 노자의 도덕경을 '노자가 한문본으로 편집하기 이전에 원래 있었을 우리말 격언 모음으로 되살린 책'이기도 하다.

또한 옮긴이는 도덕경을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된 지혜서'라며 "얘야,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그렇지, 주는 게 남는 거야"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들이 '사람이 세상사는 도리(道理)'라고 강조한다. 본문은 해설이 필요 없는 우리말로만 엮고, 도덕경 한자 원문과 공부 모임인 '빛살무늬(우리말한자연구회)' 회원들이 갑골문 작품과 글로 함께 했다.

신중일 기자

반야심경, 현대 과학언어로 설명하다



정화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정화 스님 지음
북드라망/ 1만6000원

〈반야심경〉은 일반인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 경전 중 하나다.

〈반야심경〉은 유명한 만큼, 전문가용 입문자용 할 것 없이 해설이 담긴 많은 판본이 시중에 출간돼 있다. 현대적인 언어로 수월하게 해석하고 해설한 책들도 적지 않지만 〈정화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는 다른 지평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반야심경〉에 압축된 대승불교의 요체를 현대 진화생물학과 뇌과학, 생명공학 등 현대 첨단 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서다.

생명계가 열린계, 곧 경계의 막이 열려 있다는 것은 어떤 생명체건 고립된 개체로서의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화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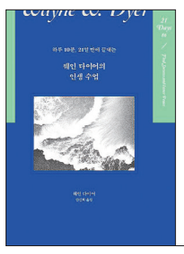
'열린계'는 자연과학의 개념으로, 외부와 물질 및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물리적 계(系)를 뜻하는데, 어떤 생명체건 고립된 개체로 있을 수 없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정화 스님은 불교의 '연기'(緣起)를 말한다. 자연과학의 생명계를 불교의 '연기법계'와 연결하며, 고립된 막으로 닫힌 자아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무아(無我)에 연결해 간다.

정화 스님은 이처럼 현대 과학의 개념들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는 물론 오온(五蘊), 육근(六根), 법신(法身) 등 핵심적인 불교 용어들을 풀어가며, 〈반야심경〉이 주문을 외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경전을 넘어 "중생계 그 자체를 부처 세계로 만드는 깨닫는 사건"에 나아가는 책으로 실감하게 하고 있다.

하여 "생명활동은 언제 어디서나 이미 깨달음을 실현하는 찬연한 삶,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삶"이라 할 수 있으니, 삶의 모습마다가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시절인연을 온전히 살아가자고 말한다.

신중일 기자

성공과 내면 평화 찾는 21일



웨인 다이어의 인생 수업
웨인 다이어 지음
안선희 번역
김영사/ 1만6800원

'자기계발과 동기부여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숱한 문제들을 탁월한 통찰로 풀어내어 전 세계 수많은 독자에게 위안과 희망을 안겼고,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선사했다.

이 책은 그의 여러 베스트셀러에서 핵심 가르침만 모은 유일한 책으로,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허투루 쓰인 문장 없이 하나하나 주옥같아서 천천히 곱씹으며 내 것으로 녹여낼 수 있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부터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기 등 나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중일 기자

"무엇이 삶을 구원하는가?"
★★★★★
오프라 윈프리가 선택한 화제의 그 책!
세상을 놀라게 만든 무고한 흑인 사형수의 뭉클한 고백
일상이 폭력인 곳에서 붓다를 만나 내면의 자유를 찾다!
붓다가 된 어느 흑인 사형수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의 한 무고한 사형수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자비스 제이 마스터스 지음
권혜림 옮김
456쪽 | 22,000원

순수한 아이들의 놀이처럼
일상을 놀이하듯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술이 된다!
따분한 일상에 창조적 숨결을 불어 넣는
'놀이의 힘'
상상을 현실로 이뤄 주는 타고난 창조적 힘에 관하여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
스티븐 나흐마노비치 지음
권혜림 옮김
280쪽
18,000원

한때는 '나'였던 것들과의 작별,
이것이 최고의 '나'로 거듭나는 비결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
★★★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명상·영성 분야 1위) ★★★
★★★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들의 추천 ★★★
지금 이 순간 나와 마주할 때 달라지는 것들
내면치유
융 푸에블로 지음
권혜림 옮김
262쪽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